

성경은 여자가 교회에서 지도적 직분이나 사역을 맡는 것을 금지합니까?

필립 B. 페인(Philip B. Payne) © 2023 Payne Loving Trust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가비 징어(Gabi Singer) – 허락을 받아 번역함)

이 강연과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는 www.pbpayne.com에서 (영어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서는 일부만 실는 고대 헬라어 본문의 그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할 무렵, 한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문맥에서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신약성경의 어떤 구절도 여성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칠 뻔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강연은 지난 50년 동안의 제 연구 결과를 요약합니다. 이 연구는 지도적 역할을 맡는 여성에 대한 **네 가지 주요 반론에 관해**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론 1: 성경은 남자가 머리라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교회와 가정에서 오직 남자만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고린도전서 11:3을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라고 번역한 데 근거합니다. 오늘날 독일어에서는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리”(Haupt)라는 단어가 흔히 “...에 대한 권위”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문맥은 바울이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다**”라는 뜻으로 말했으며, 이로써 아담을 가리켰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근원이라는 뜻의 “머리”는 12세기 이후 헬라어 사전들에 나옵니다.¹

헬라어에서 권위는 “머리”의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방대한 헬라어 사전은 이 단어의 비유적 의미를 마흔아홉 가지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도 권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²

세속 고대 헬라어 사전들 대부분은 이 단어가 권위를 뜻하는 예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속 헬라어 사전에서 찾은, 이 단어가 **권위**라는 의미로 쓰인 **가장 이른** 예는 주후 4세기의 것입니다. 헬라어 사전들은 **권위**라는 의미의 **머리**를 비잔틴 시대나 중세의 용법으로 분류합니다. 바울이 글을 쓴 때보다 한참 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머리**로 **권위**를 표현하려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울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70인역)은 **권위**가 이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었음**을 확인해 줍니다.³ 70인역은 신체의 머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을 거의 **언제나** 이 단어로 옮기지만, “머리”가 “**지도자**”를 뜻할 때는 거의 **한 번도** 이 단어로 옮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머리**가 지도자를 뜻하는 경우는 180번입니다. 이 180번 가운데 헬라어 70인역이 “지도자”의 은유로 분명하게 머리(kephale)라는 단어를 쓴 경우는 **단 한 번뿐**입니다. “머리”가 “지도자”를 뜻한다는 다른 모든 **이른바** 사례는 3세기에 오리게네스(Origen)가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례들은 문맥으로 보아 "지도자"와는 다른 것을 뜻하거나, "머리로"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독자들은 이것을 "머리이다"가 아니라 "머리처럼"⁵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쓴 **머리**의 은유 12개 가운데 **권위**라는 의미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 개**는 **근원** 또는 기원을 표현하려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꼭대기**, 곧 정점을 나타냅니다.⁶

여자들을 교회 지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경이 여성 지도자들을 여러 번 인정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사역의 동역자로 언급하는 열 사람 가운데 일곱 명이 여자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집사"이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지도자 (헬라어 prostatis)"⁷인 뵈뵈, 그리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사도들 가운데 뛰어났던" 여성 유니아가 있습니다.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속 헬라어 사전, 헬라어 성경, 바울의 언어 용법, 그리고 바울이 교회 지도에 참여하는 여자들을 인정한 사실은, 바울이 "머리"로 "권위"를 뜻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우위나 지도적 역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론 2: 디모데전서 2:12는 이렇게 가르친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해 권위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반적인 금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디모데전서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사람으로 지목된 **유일한** 사람들이 여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편지가 특정한 **지역적** 문제⁹를 다룬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번역은 **네 가지** 이유에서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옛 NIV(New International Version)가 "권위를 갖다"로 옮긴 헬라어 단어 **authentain**은 "**권위를 움켜쥐다**"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단어가 분명하게 "권위를 행사하다"를 뜻하는 첫 용례는 **300년**이나 뒤에야 나타납니다.¹⁰ 신약성경에서는 "권위를 행사하다"에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바울 시대에 이 단어는 "지배하다"를 뜻하거나, 더 흔하게는(21번) "권위를 가로채어 차지하다"를 뜻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역본이 더 정확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로채다**"입니다. 신약성경의 표준 사전은 이 단어를 "독자적인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다**"로 정의합니다. 2011년판 NIV는 번역을 "**권위를 제멋대로 취하다**"로 고쳤습니다.

둘째, 바울은 "가르치다"와 "권위를 움켜쥐다"를 잇는 접속사(그리고)를 보통 **하나의** 생각을 전하는 데 씁니다.¹¹ 따라서 그는 여자들이 권위를 가로채어 가르치는 경우**에만** 가르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구절은 인정받은 가르치는 권한을 가진 여자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길라가 그런 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 여자에게 문안합니다.

셋째,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동사는 보통 **일시적인 것, 영속적이지 않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동사의 문법 형태는 영속적인 금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은 지금 효력이 있는 허락이나 금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로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금지보다는 에베소의 당면한 위기를 가리킵니다.

넷째, 이 구절이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영속적으로** 금지한다면, 그것은 여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의 많은 긍정적인 진술과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영감된 **성경**의 핵심 부분들을 여자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미리암과 드보라의 노래, 한나의 기도, 아비가일의 예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영감된 말**, 엘리사벳의 축복,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성경 해석**인 마리아의 찬가(Magnificat)가 그렇습니다.¹²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12는 특정한 문제, 곧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던 미혹된 여자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구절은 그 교회의 여자들에게 권위를 가로채어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브리스길라처럼 인정받은 가르치는 직분으로 가르치는 여자들은 그런 권위를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에게 모든 곳에서, 또는 모든 때에,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해 권위를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반론 3: 여자는 지역 교회의 장로, 감독, 목사가 될 수 없다. 성경은 지역 교회의 지도자로 오직 남자만을 상정하고 결코 여자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약성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이름을 들어 **감독**이나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을 "장로", 베드로를 "함께 장로 된 자"라고 부를 때, 그것은 어떤 지역 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적 목격자**로서 온 교회, 곧 세계 교회의 장로였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지역 교회**의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칭호가 주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집사 뵈뵈"입니다. "뵈뵈가 그곳 교회의 '한 (어쩌면 '그') 여성 집사'로 불린다는 것은 사실상 **확실합니다**."¹³

바울은 모든 신자에게 감독이나 장로가 되기를 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¹⁴

디도서 1장에서 장로의 자격 요건의 주어도 "**누구든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대부분의 영어나 독일어 번역과 달리, 두 목록 어디에도 "그", "그를", "그의"가 하나도 없으며, 남자로 한정하는 **다른 어떤** (문법적)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자격 요건이 여자들을 배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부장제 또는 상호보완주의의 대표적 옹호자인 더글러스 무(Douglas Moo)와 토머스 슈라이너(Thomas Schreiner)조차 이것이 여자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¹⁵ 요비명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결혼 생활의 신실함을 뜻하는 **관용구**였음을 보여 줍니다.¹⁶ 관용구를 **배제**하는 요건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입니다.¹⁷ 뵈뵈가 여성 집사였고, 디모데전서 3:11에서 **집사**의 자격 요건 안에 **여자들의** 자격 요건이 들어 있으므로, 바로 다음 절의 "한 아내의 남편"은 당연히 여자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세기의 가부장제 옹호자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John Chrysostom)조차 “한 아내의 남편들”이라는 말이 여성 집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썼습니다.¹⁸ 그는 헬라어의 남성형이 여자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여자들을 포함해야 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남성형이 7,500개에서 8,000개 있습니다. 대략 한 절에 하나꼴입니다.¹⁹ 고든 휴겐버거(Gordon Hugenberger)가 보여 주었듯이, 남성들에게 주어진 성경의 요구가 **여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²⁰

반론 4: 바울은 세 번이나 명령한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린도전서 14:34-35).

꾸란의 초기 사본들에는 상당한 본문 이형이 있는데도, 이슬람은 꾸란 본문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널리 가르쳐 왔습니다. 이와 달리 교회는 오리게네스(Origen) 시대 이후 사본들에 본문 이형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 왔습니다. 「성경 무오에 관한 시카고 선언」 제10조는 “성경의 사본과 번역은 원본을 충실히 재현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합니다. 본문비평의 학문적 원칙들은 현존하는 수천 개의 사본으로부터 신약성경의 원래 본문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이른 사본들에는 긴 결말(마가복음 16:9-20)이 없으며, 그것이 마가복음의 원래 본문에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긴 결말은 18절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들은 손으로 뱀을 집어 올릴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원래 본문에 없었으므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4:34-35도 바울의 원래 편지에 있었을 **때에만**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사본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 이유와 이 구절들의 단어에서 나오는 **아홉** 가지 이유가 저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이 구절들이 바울의 원래 편지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 구절들의 명백한 의미는 “**모두**”가 가르치고 예언할 수 있다는 이 장의 진술들과, 여자들이 예언한다는 11:5의 확인과 모순됩니다.

둘째, 바울 서신의 사본들에는 이만큼 긴 본문 단락이 (사본에 따라)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자리에, 그것도 뚜렷한 이유 없이 놓여 있는 경우가 달리 없습니다.

셋째, 가장 오래된 성경은 이 구절들을 후대의 진정하지 않은 첨가로 표시합니다.²¹

이제 이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구절들은 이 장의 다른 많은 진술과 모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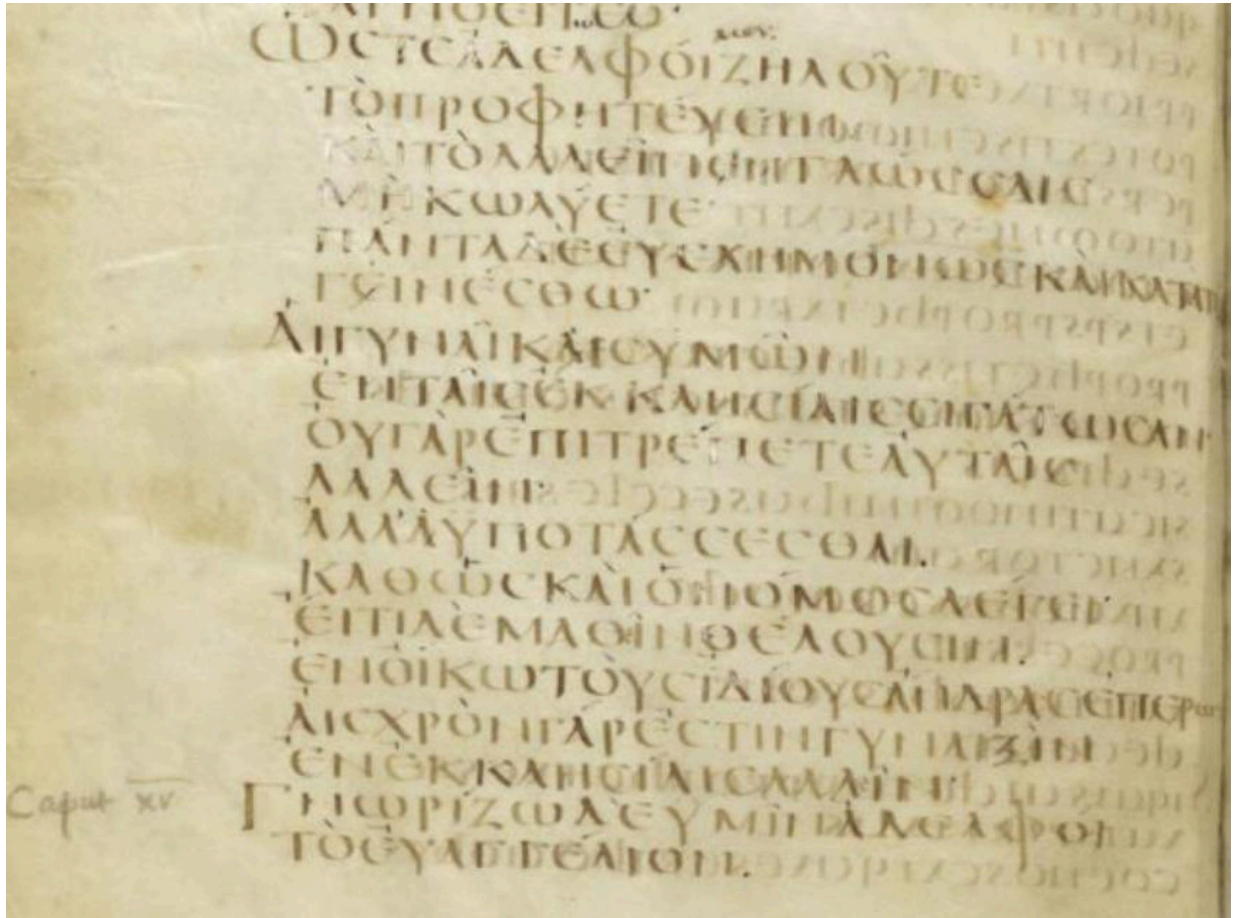
모순을 피하려고 많은 사람은, 바울이 **오직 방해가 되는 수다만** 잠재우는 것이라거나, 1962년에 처음 제안되었듯이²² **오직 예언을 판단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이 단락에서 세 번이나 힘주어 되풀이되는 무조건적인 침묵 요구와 맞지 않습니다. 34절이 예언을 판단하는 것만 금지한다면, 34절은 35절에서 **금지된** 말까지 **허용하는** 셈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은 예언을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며,

방해가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런 해석들을 따르면 바울은 자기가 방금 쓴 것과 모순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둘째, 이 구절들은 모든 “서방” 헬라어 사본에서 40절 뒤에 나오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33절 뒤에 나옵니다.

여기 6세기의 유명한 “서방” 코덱스 D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첫 번째 온전한 문단은 14장의 끝입니다. 다음 문단이 34-35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15장이 시작됩니다.

“Western” Codex D (06) Claromontanus



34-35절이 놓인 서로 다른 두 자리는, 누군가가 이 구절들을 여백에 적었고 후대의 필사자들이 그것을 33절 뒤나 40절 뒤에 넣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원래** 본문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본문들의 생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원래 본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바울 서신의 어떤 사본도 **어떤** 큰 본문 덩어리든 뚜렷한 이유 없이 **이만큼** 멀리 옮기지 않으며, 초기의 어떤 독자도 이 본문의 위치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²³ 그러나 필사자들이 여백의 글을 본문에 옮겨 적는 일은 **흔했습니다**.

예를 들어 4세기의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에는 마태복음 본문의 여백에 오래된 글이 적힌 곳이 20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군데를 빼고는 모두 그 뒤의 거의 모든 사본에서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여자들이 공적인 모임에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²⁴ 그러므로 **주후 200년 이전** 어느 때에 어떤 독자가 이 구절들이 표현하는 “널리 알려진 통념”을 여백에 덧붙였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이 놓인 두 자리에 대해, 필사자들의 알려진 관행과 들어맞는 **유일한** 설명은, 누군가가 이 두 구절을 먼저 어떤 사본의 여백에 적었고 후대의 필사자들이 그것을 33절 뒤나 40절 뒤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따르면, **흔한** 일 – 여백의 글을 본문에 넣는 일 – 이, 다른 사례가 하나도 알려지지 않을 만큼 **이례적인** 일 – 그렇게 많은 본문을 뚜렷한 이유 없이 그렇게 멀리 옮기는 일 – 보다 더 일어날 법합니다.²⁵

셋째, 정확성으로 널리 칭송받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성경인 바티칸 사본은, 교회에서 여자들을 침묵시키는 이 구절들을 **진정하지 않은 거짓 끼어듦**으로 표시합니다.

아래 그림의 빨간 삼각형은 고린도전서 14:34-35에서 원래 본문이 끊긴 자리를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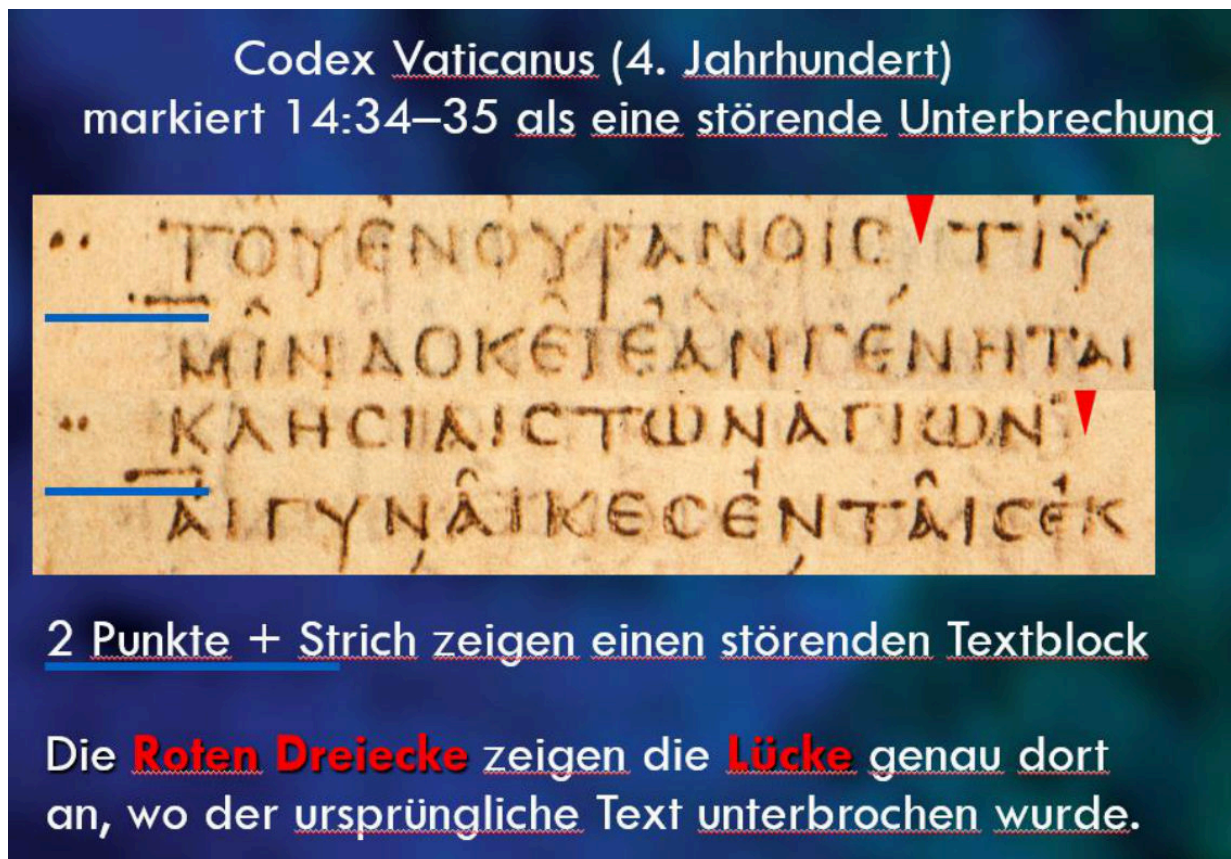


그림 출처: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바티칸 사본에서는 15군데에서 두 점과 밑줄이 **빈칸**과 함께, 원래 본문이 끊긴 자리를 정확히 표시합니다.

다른 사본들에서는 이 **15군데** 모두에 적어도 **네** 단어의 끼어듦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긴 끼어듦은 바티칸 사본 본문에서 평균적으로 83.5줄에 한 번꼴로만 나타납니다.

이 기호들이 거짓 끼어듦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리고 바티칸 사본에서 무작위로 고른 15줄을 100조 년 동안 매초 쉬지 않고 뽑는다 해도, 15줄 모두가 네 단어 이상의 끼어듦과 **단 한 번이라도** 맞아떨어질 확률은 2,000분의 1보다 작습니다.²⁶

게다가 이 긴 끼어듦들은 그 줄들의 아무 곳에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필사자가 남긴 두 점과 가로줄 기호 **15개 모두에서 빈칸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이 필사자는 이사야서에서 세 번이나, 가로줄이 덧붙여진 본문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경우 모두, 신약성경의 15군데와 똑같이, 덧붙여진 본문이 원래 본문을 끊는 바로 그 자리에 **빈칸**을 남겼습니다. 본문에 빈칸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은 원래의 필사자**뿐**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잠잠하라”가 거짓 본문이라는 이 필사자의 판단은 두 가지 이유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첫째, 헬라어 신약성경의 두 표준판 모두, 두 점과 가로줄 기호가 있는 자리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삽입된 본문 덩어리들이 진정하지 않은 첨가라는 데 이 필사자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둘째, 이런 첨가들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이 필사자가 바티칸 사본 이전 시대의 신약 본문을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물론 34-35절이 현존하는 모든 사본의 어딘가에(곧 33절 뒤나 40절 뒤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매우 이른 시기의 삽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는 것은 바티칸 사본만이 아닙니다. 빅토르(Victor) 주교는 풀다 사본(Codex Fuldensis)의 아래쪽 여백에 이 구절들을 뺀 수정 본문을 적게 했고, 비서방 본문인 사본 88은 이 구절들을 33절 뒤에서는 빼고 40절 뒤에 넣으면서, 이것들이 33절 뒤에 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붙였습니다. 이 구절들은 빅토르의 고린도전서 본문 증거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구절들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본문 증거에 나온다”는 댄 월리스(Dan Wallace)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bible.org/article/textual-problem-1-corinthians-1434-35>). 본문 학자들은 한 사본 안의 서로 다른 본문에 서로 다른 사본 기호를 붙입니다. 14:34-35는 이런 별도의 사본 기호로 구분되는 모든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14:34-35의 본문이 모든 사본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월리스는 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이 구절들은 전승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 원래 문서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어야 한다”고 반론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에베소서 5:22에 “복종하다”라는 동사가 **빠르게** 받아들여진 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²⁷ 이것은 34-35절의 첨가가 2세기 깊숙이까지 현존하는 모든 사본에 들어간 일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주요 본문 전문가가 바울이 이 구절들을 쓰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²⁸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David Bentley Hart)의 새 그리스 정교회 번역은 이 구절들을 “거의 확실히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거부합니다. 독일성서공회의 새 성경은 이 구절들이 “바울이 11장에서 말하는 것과 모순되며” “아마 후대의 삽입”이라고 말합니다. (“BasisBibel(독일어 성경 번역본); 인용: 14:34, 34-35절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1:2-16에서 교회 안 여성의 역할에 대해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 이것은 아마 후대의 삽입일 것이다.”)

이 네 가지 반론에 대해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1. 남자와 여자는 **함께** 이끌어야 합니다.
2.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쳐도 **됩니다**.
3. 바울은 **모든** 신자에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라고 격려합니다.
4. 성경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고**, 심지어 예언하도록 격려합니다.

제가 권위를 남자에게 한정한다고 **생각했던** 이 네 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오히려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똑같이 자유롭게 이끌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지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 네 가지 반론의 문제는, 그 반론들이 근거로 삼는 본문 가운데 어느 것도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성경의 그토록 많은 **근본 원리**가 그것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신학적 원칙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땅을 **다스리도록** 정해졌습니다.

둘 다 **창조의 복**을 받았습니다.

둘 다 **창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교회 안의 **피차** 복종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전제합니다. **결혼** 안의 **피차** 복종도 마찬가지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됨**,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미 시작된 **새 창조**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섬김을 위한 은사를 주십니다.

섬김이라는 교회 지도의 본질은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기도와 예언으로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고린도전서 11:11에서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가 논의를 끊고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거듭 쓰는 단어입니다.²⁹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3:28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 남자나 여자나 없으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의 표현과 평행 본문들은 이것이 교회를 묘사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방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에서 물러났다고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자를 교회 지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분명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 됨에 훨씬 더 어긋납니다.

주

1. LSJ 801; D. Dhimitrakou, *Μεγά Λεξικόν Όλης της Ελληνικής Γλώσσας* (9 vols.; Athens: Oikos Dhimitrakou, 1933–1950) 5:3880 [using the OdysseyUBSU font from LaserGreek in Unicode linguistsoftware.com].
2. Moulton & Milligan, Friedrich Preisigke, Pierre Chantraine, S. C. Woodhouse, E. A. Barber, R. Renahan, P. G. W. Glare의 LSJ 보충판, 그리고 Richard S. Cervin이 "Does Kephālē mean 'Source' or 'Authority Over' in Greek Literature? A Rebuttal," *Trinity Journal* 10 NS (1989) 85-112, 86-87쪽에서 언급하는 13개의 추가 사전.
3. 70인역(LXX)이라고도 하는 Rahlfs 판과 괴팅겐 판 70인역에 실린,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잘 입증된 헬라어 역본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 경우들 대부분을 "head"(머리)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 NASB는 116번, ASV는 115번 그렇게 옮깁니다. 영어에서는 "leader"(지도자)가 "head"의 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4. eis kephalēn
5. 예를 들어 사사기 11:11에서 "머리로" 뒤에 덧붙은 "그들의 통치자로"라는 말은, 헬라어 독자들에게 달리는 분명하지 않았을 "머리로"의 의미를 밝혀 줍니다.
6. 골로새서 2:19; 에베소서 4:15-16의 "머리(κεφαλή), 곧 그로부터(ἐξ οὗ) 온몸이 ... 자라는 머리". 골로새서 1:18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αὐτός ἐστιν ἡ κεφαλή]. ὅς ἐστιν ἡ ἀρχή, 그는 '몸의 생명의 근원'['기원'(NEB)]'이시다'(TEV/GNT). 1:16-17: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 "십자가의 피로"(1:20)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1:22). 고린도전서 11:3abc, 4b, 5b. 에베소서 1:20-22의 공간적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늘에서 ... 훨씬 위에 ... 아래에 ... 그를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이로 교회에[τῇ ἐκκλησίᾳ] 주셨느니라." 골로새서 2:9-10: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생명의 충만에 이르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면류관이니시라."
7. 신약성경에 나오는 같은 어원의 단어는 모두 지도와 관련됩니다. 참조: Philip B. Payne, "What About Headship? From Hierarchy to Equality", in *Mutual by Design: A Better Model of Christian Marriage* (E. Beyer 편; Minneapolis, MN: CBE 2017) 150-152.
8. Cf. especially Eldon J. Epp, *Junia: The First Woman Apostle* (Minneapolis: Fortress, 2005) 110–21 and Richard Bauckham, *Gospel Women: Studies of the Named Women in the Gospels* (Grand Rapids: Eerdmans, 2002) 165–186.
9. 이것은 왜 바울이 에베소의 여자들에게 권위를 가로채어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는지, 그리고 왜 이 단락에 "여자들이 배우게 하라"(디모데전서 2:11)는 명령이 들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0. 주후 370년경, 성 바실리우스(Basil), 『서신』 69, 45행: "그[로마의 감독]는 여행의 수고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 이 문제에서 스스로 전권[αὐθεντί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oy J. Deferrari, *St. Basilus* 2:40-43 (LCL).
11. Philip B. Payne, "1. Tim 2.12 and the Use of οὐδέ to Combine Two Elements to Express a Single Idea", *NTS* 54 (2008): 235-53은 바울의 οὐδέ 용례를 모두 검토합니다. Philip B. Payne, "Οὐδέ [oude] Combining Two Elements to Convey a Single Idea and 1 Timothy 2:12," in *Missing Voices: Broadening the Discussion on Men, Women, and Ministry*, ed. Hilary Ritchie (Minneapolis: CBE International, 2014), 24-34는 반론들에 답하고, 그리스 문헌에서 οὐδέ의 이런 용법을 예시합니다.
12. 출애굽기 15:21; 사사기 5:2-31; 사무엘상 2:1-10; 25:24-31; 잠언 31장 (31:1 "an inspired utterance his [King Lemuel's] mother taught him" NIV); 누가복음 1:25, 42-45, 46-55, 잠언 31장
13. C. E. B.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ICC; Edinburgh: T&T Clark, 1979) 2:781.
14.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라고 격려합니다.
15. Douglas J. Moo, "The Interpretation of 1Timothy 2:11–15: A Rejoinder," *Trinity Journal* 2 NS (1981) 198–222, at 211; Thomas R. Schreiner, "Philip Payne on Familiar Ground: A Review of Philip B.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Paul's Letters*" *JBMW* (Spring 2010) 33–46, at 35.

16. 묘비명들을 보면 이 관용구가 신실함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 그러므로 이 관용구의 한 단어가 별도의 요건으로도 기능한다는 주장은 모두 관용구를 오용하는 것이며, 이중의 의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용적 표현의 한 단어를 떼어 내어 그 단어를 별도의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8. 크리스소스토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11절이 여자들 일반에 대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왜 자기 주제를 끊으면서 여자들에 관한 말을 끼워 넣겠습니까? 그는 여성 집사의 직위에 있는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NPNF1 13:763; NPNF1 13:116.
19. The Analytical Greek New Testament의 공저자 Tim Friberg가 헬라어 신약성경 전체를 두 번 세어 이 수치를 얻었습니다.
20. G. H. Hugenerberger, "Women in Church Office: Hermeneutics or Exegesis? A Survey of Approaches to 1 Timothy 2:8-15" JETS 35/3 (1992) 341-60, 360쪽 각주 78: “남성 중심의 용어를 쓰는 규범은 일반적으로 두 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1. 바티칸 사본 B. 신약성경의 가장 믿을 만한 헬라어 사본으로 널리 여겨집니다.
22. W. Klein, "The Church and the Prophets," ATR 44 (1962) 8.
23. Ulrich Schmid, "Conceptualizing 'Scribal' Performances: Reader's Notes," in The Textual Histo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Changing Views in Contemporary Research, ed. Klaus Wachtel and Michael Holmes (Atlanta: SBL, 2011), 49-64, at 62, 50, 58: "Readers ... react[ed] to what they read by adding comments in the margin. . . . 이런 메모 가운데 일부는 그렇게 '꾸며진' [사본]을 베껴야 했던 필사자들이 본문에 옮겨 적었을 수 있습니다. . . . 적어도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필사자들의 경향은 난외의 메모를 본문에 넣는 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 예를 들어 플루타르코스,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포클레스, 데모크리토스, 아일리오스 아리스테이데스, 그리고 많은 랍비.
25. 이것을 “필사상의 개연성”(transcriptional probability)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난외의 본문으로 인정하는 주된 이유가 다른 본문의 신뢰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26. 가로줄과 점들이 삽입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15줄 모두에서 어딘가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83.5^{15} 분의 1입니다. 이것은 6.6880134×10^{28} 분의 1보다 작습니다($10^{28} = 100\text{조} \times 100\text{조}$). 1년은 31,536,000초입니다.
27. 거의 모든 헬라어 판이 보여 주듯이, 에베소서 5:22의 가장 이른 사본들에는 “복종하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히에로니무스(Jerome)의 주석은 헬라어 사본들에서 22절에 21절의 동사 “복종하다”가 한 번도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UBS 본문은 “복종하다”가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22절 어딘가에 “복종하다”의 어떤 형태가 나오는 첫 사본인 시나 사본(Codex Sinaiticus)은 주후 36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현존하는 모든 사본에는 “복종하다”가 들어 있습니다. 후대의 어떤 사본도 “복종하다”를 빼지 않았으므로, 가장 이른 모든 사본에서 “복종하다”가 빠졌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 따라서 아내의 복종은 그 동사를 “피차 복종하라”에 의존합니다. 상호 대명사는 피차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읽사람에 대한 복종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양보한다는 의미의 복종”을 뜻합니다(BDAG 1042). 골로새서 3:18은 아내가 “주 안에서 마땅한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아내의 복종에 대해 제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별 위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디도서 2:5]입니다. 곧 문화적 규범을 거스르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조: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설득되게 하려 함이니 ... 남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고, 지혜롭게 서로 함께 살며, 아내를 더 연약한 여성의 [BDAG 208, gynaikeios, “여성의”] 귀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마땅히 받을 존중을 아내에게 돌리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1, 7].
28. Philip B.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9) 226-227은 이런 결론에 이르는 연구 55편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명망 있는 복음주의 본문 연구자 고든 피(Gordon Fee)와, 최근에는 리처드 펠로스(Richard Fellows)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학자 조지프 피츠마이어(Joseph Fitzmyer)는 “오늘날 해석자들의 **대다수**”가 이것이 후대의 첨가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연구자 김 헤인스-아이첸(Kim Haines-Eitzen)은 “오늘날 거의 모든 학자”가 그렇게 본다고 지적합니다.
29. BDAG 826, “논의를 끊고 핵심을 강조하다”;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34), 1187, Blass를 인용하여 “to single out the main point.” BDF\$449 (234쪽) “바울에게서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